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1월 25일(토요일) 제1468호

하나님 나라 새 일꾼 548명 임직!



사진은 '2022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25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명예권사 3명, 권사 223명, 안수집사 322명(남 133명, 여 189명)

하나님 나라 새 일꾼 548명이 임직된다. 11월 25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린다. 이날 명예권사 3명, 권사 223명, 안수집사 322명(남 133명, 여 189명)이 임직된다(11월 23일 기준). 임재희 권사 임직후보(인천온누리교회), 김준홍 집사 임직후보(OCC공동체), 김수정 집사 임직후보(양재B공동체)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는다.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는 2부로 나뉘어 드린다. 1부에서는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축하 공연,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등을 한다. 2부에서는 안수기도, CRUX 축하 특순, 이인용 장로 권면, 임직 증서 수여 등이 이어진다.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 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를 입어야 한다. 당일 교회 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양재역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사랑

홀 안내데스크에서 4시간 무료 주차권을 지급한다. 셔틀버스는 운행한다.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이어진 '2023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교회론과 목회철학', '온누리교회비전과 창의적 리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일터영성' 등을 주제로 훈련받았다.

오는 12월 2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2023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56명(예정)이 대상이다.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어진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치른 장로 고시를 통과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정기후원 행사 2천 1백명, 4억7천만 원 약정

지난 11월 18일(토)과 19일(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 'CGN 2023 정기후원 행사'에서 후원자 2천 1백 명이 4억7천만 원(11월 22일 기준)을 약정했다.

CGN 대표 이용경 장로는 "앞으로도 CGN 임직원들은 땅끝의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미디어 선교사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겠다"를 약속했다.

CGN 후원은 웹사이트(www.cgntv.net)나 전화(02-796-2243)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대학청년부, 사랑애포니 시작

11개 공동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대학청년부가 '2023 사랑애포니'를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별로 12월 2일(토), 9일(토), 16일(토)에 실시한다.

대학청년부 '2023 사랑애포니'에서는 서울 시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정 1천 75가구에 생필품, 반찬 등을 전달한다. 폴투청년부 작은자교회 50가구, 하늘대학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80가구, 요셉공동체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20가구, 허브대학부 중앙사회복지관 85가구와 신앙장로교회 150가구,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 100가구와 산마루교회 30가구, 갈렙청년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50가구, W청년부 나섬교회 40가구,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200가구,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80가구, 길청년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0가구, CH+ 등대교회 40가구를 섬길 예정이다.

대학청년부 '2023 사랑애포니'에 동참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70-7523 / 김다예 기자

2023 엔젤트리 사연 게시

'2023 엔젤트리' 사연 6천여 건을 11월 25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게시한다.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성도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와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를 통해 사연을 뽑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된다. 이웃에게 전달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3 엔젤트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엔젤트리 대상자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도록 배송을 서둘러야 한다. 선물을 발송한 성도들은 사회선교본부 엔젤폰(010-6442-0191)에 선물 발송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꼭 보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당회

일시: 12월 2일(토) 오전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안건: 2024년 예산, 당회운영위원선출, 장로는퇴직

제직회

일시: 12월 3일(일) 2부예배 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2024년 예산

공동의회

일시: 12월 3일(일) 3부예배 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2024년 예산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진리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 나온 이후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도피한 이후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래 머무는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그 기간을 배우자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 종으로 일했습니다.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삼촌에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목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와 형의 상처를 일부라도 느끼고 공감하는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야곱의 또 다른 면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만 머물며 조용하고, 연약하고, 섬세한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매우 강인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20여 년 동안 야곱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라반의 양 떼를 돌봤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내어 줄지 없었기에 가족들과 함께 몰래 도망치듯 빠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많은 가족과 부유함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많은 것을 소유한 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계획과 연약한 믿음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창 32:7-8).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 자신의 가

깨어짐의 축복

창세기 32:22~32

족과 가족 등 소유물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일 에서가 공격해 오면 한 그룹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 모두 합하면 580마리 정도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을 또 여러 그룹으로 나눕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면 또 다른 선물을 주는 형식을 취하려고 나섰습니다. 많은 양의 가축 떼를 선물로 보내면서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 떼가 에서의 진영으로 가면 이동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가축이 많이 움직이면 정보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종들이 에서의 진영에 들어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하였다’는 표현에 담긴 뉘앙스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꾀로 대비되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12절을 보면, 야곱은 그가 떠날 때 베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선물을 준비하고 도피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비책을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와 보호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이미 나타났고, 야곱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줬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연약한 믿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에서가 한 그룹을 치면 다른 그룹이라도 도망가려 했습니다. 또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물질로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연약한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언제나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야곱이 세운 모든 계획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거나 혹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어떻

게 풀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24절).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도전자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압복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 줄기 옆에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해놓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이나 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 속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야곱이 싸움하는 가운데 자신을 공격해온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에서 천사로도 임재하시지만, 신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수준에 맞추고 자신을 낮추며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행객으로 있을 때는 세 명의 여행객으로 오셔서 자녀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는 왜 육체적 싸움을 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벳삭에서부터 씨웠습니다. 형과 아버지와 싸우되 속여서 이겼습니다. 삼촌 라반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늘 자신이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는 야곱의 인생은 싸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소유들을 압복강을 건너게 하고, 왜 홀로 남았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무서운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 보내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보낸 사람들도 두 그룹 나눴습니다. 에서가 한 그룹을 치면 다른 그룹은 도망가게 하려고 나눴습니다. 자기는 가장 뒤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무장 간첩을 이끌고 온 김신조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이야기가 자신은 청와대 인근에 국군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반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깨어지면 완전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가 어떻게 살았나면 부하들은 진격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겁함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전략입니다. 그는 과연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면 앞 그룹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덜 사랑하는 레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가 라헬입니다. 라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아내를 먼저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막 슬피 울고 통곡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라며 자기 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인지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아내의 죽음을 진짜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는지 구분이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재혼하셨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자기를 걱정하던 울음이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가족들까지 모두 건네보내고 자기는 뒤로 도망갈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는 그 말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해라”가 아니라 “나는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뒤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짐의 축복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시려고 싸움을 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싸움은 건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에게 숨어 있던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움켜쥐는 자’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의 정체입니다.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씨웠다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곱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코브’입니다. 압박은 ‘야보크’입니다. 싸우다는 ‘야베크’입니다.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한 것’입니다. 모음만 바뀌는 것입니다. 압박강이라는 지명도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뺏겼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났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25~26절).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특별한 존재를 놓지 않으려고 결코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신적인 인간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위골시켰습니다. ‘환도뼈’라고 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뼈를 위골시킨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장난치듯 씨름할 때 어릴 때는 부모가 무조건 져야 합니다. 자녀가 툭 밀었는데 부모가 뒤로 나가떨어지면 매우 좋아합니다. 부모가 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끝까지 이기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서 교만해 질 때는 한 번씩 꺾어 줘야 합니다. 무작정 져주면 안 됩니다. 가끔은 부모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이 뼈가 어긋나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기어가듯 가야 합니다. 왜 많은 뼈 중에 엉덩이 뼈일까요? 야곱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만일의 경우 ‘자신은 도망가리라’입니다. 자신이 의지한 것은 엉덩이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만일의 경우 도망갈 수 있는 다리를 붙잡아줄 수 있는 엉덩이뼈를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 야곱이 압박 나루터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같이 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깨졌을까요? 자신의 계획이 깨어진 것이고, 이기심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기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신 것이고, 그의 엉덩이뼈를 위골시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간절히 매달립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꼬를 깨뜨리기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꼬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상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싸움이 영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엉덩이뼈가 위골되지 않았으면 영적 기도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기도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이 시점에서 이름을 다시 묻는 것은 이 싸움이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늘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깨어짐이 온전함으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28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엉덩이뼈가 상해서 비틀거리며 매달리는 사람에게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축복을 간청하는 일을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승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패배할 때입니다. 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심으로 바랄 때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승리자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프레드릭 뷰크너는 야곱의 패배를 ‘장엄한 패배’라고 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몸에 평생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이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는 왼손으로는 싸움을 걸어오시는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보호하시고 방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또 한편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깨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패배자가 됨으로써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깨어짐으로써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이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깨어져 완전히 죽음에 넘겨진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져 죽음에 넘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뤄 이긴자, 부활의 승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 나루터가 우리가 나아가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언제나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압박 나루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했듯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면 완전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성경적 조항들의 문제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은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인권 NAP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 즉 다양한 성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에 어긋날뿐더러 잘못된 인권으로 양성에 기반한 우리나라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4차 인권 NAP 안이 발표되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많은 기독교 단체가 여기에 포함된 젠더 이념 강화,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나쁜 요소들(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삭제를 촉구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인 2001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유엔의 부설기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즈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NAP 제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인권 NAP (2007~2011)를 제정한다. 이후 5년마다 2차(2012~2017), 3차(2018~2022) 인권 NAP가 제정되었고,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지난 정권 때 제정된 3차 인권 NAP에서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가 강조된 정책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지난 5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며, 인권 NAP 작성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인권 NAP는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모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정부 각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4차 인권 NAP는 올해 12월 협의회에서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서 구성된 전문가들과 그 위원회의 의견에 의존해서 만들었기에 3차 NAP와 별 차이 없이 성 혁명 이념의 집행을 각 부처가 계획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그 속에 포함된 반성경적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내는 행정부의 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령 속에 그 내용들을 넣겠다는 계획이 인권 NAP라는 점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8월 작성해 정부에 보낸 권고에 따라 각 부처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1)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실질화, 성인지(다양한 젠더 인정)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캠페인, 다양한(동성혼, 동거) 가족 인정 2)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평등(양성이 아닌 그래서 다른 젠더 포함) 문화콘텐츠 실천 확산, 청소년 초기 성교육(성적자기결정권) 3) 법무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합리적 의견제시, 인권정책기본법안 마련 4) 방송통신위에(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 표현 방지 5) 경찰청 규칙에 잘못된 성평등, 인권정책 수립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유엔산하 인권기구의 잘못된 인권 기준이 경찰에 교육되도록 하는 규정, 외부개방형 인권정책관 제도 신설(인권단체가 경찰을 제어하려는 시도) 6)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절 관련 법 정비, 중절 약품 허용, 유니버설 디자인(성중립 화장실 설치) 7)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인권단체 지원 등의 문제점을 가진 내용이 제4차 인권 NAP 속에 들어있다.

제4차 인권 NAP가 현재 발표된 안의 내용대로 확정되면 성 혁명 이념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법이 동시에 통과돼 5년 동안 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4차 인권 NAP가 이대로 확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미 밝혀진 반성경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의 거센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다. 우리의 침묵으로 현실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주변에 알려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사소한 현안들에 휘둘리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선택해 국면을 전환하는 노력이다. 지금의 성 혁명적 문화를 성경적 문화로 되돌리려면 가정과 교회를 약화시키는 이 문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난 현상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는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역에서 일어나고, 성경적 가치수호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고, 지혜를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상 문화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만 받던 상황을 역전시켜 복음의 문화를 전파하는 목소리가 연합되고 커질 때 우리 사회가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왜 필요한가?

강애리 목사
(드보라선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세계관의 충돌은 영적 전쟁이다. 반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되심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을 부정한다. 다른 세계관과의 충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엡 6:12). 불신앙의 뿌리에는 악한 영과 영적 무지,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스 기니스의 말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변질과 타협을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반성경적 세계관의 공격과 유혹이 신앙의 박해보다 위협적이고, 위험해 보인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과 젠더 이슈는 부지불식간에 가정과 교회를 약화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게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전인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기 위한 성문과 성벽이다.

성경적 우선순위와 절대적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세계관, 즉 독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롬 12:2). 그 변화는 본질적 변화이다. 자기중심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에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춰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마 6:33),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히 13:8), 사랑 가득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영적 민감성과 영적 통찰력도 회복해야 한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통해 인간은 선의 유일한 근원이며, 선악의 최종판단자인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잠 14:12).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다.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다(시 119:105). 드러난 것보다 중요한 근원을 볼 수 있는 영적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회복하게 한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반성경적 시대정신과 진조를 파악하는 영적 민감성과 현상을 넘어 뿌리를 보고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하는 절대적 이야기다. 복음이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이 주(主)가 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매 순간 재정립해야 한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모든 이의 삶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간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신앙 여정에는 개인의 성품의 열매와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해야 한다. 성령의 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총체적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자신도 모르게 반성경적 세계관의 폭풍에 휩쓸리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평생에 걸친 성화 과정이다.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고, 복음의 능력과 삶의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타락-구속-완성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며, 숲(통독)과 나무(QT)를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하다. 지성과 감성, 의지를 사용한 전인적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 지적인 이해를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정적 경험을 통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얕이 믿음이 된다. 의지적 결단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다림줄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경험하고, 확장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중독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님께 기대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마음과 시간을 쏟게 하는 존재를 말한다.

2018년 청소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주간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16시간 54분이었다.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무려 98.1%나 됐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7명 중 1명이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 청소년들은 본드나 기스를 흡입하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독을 일으키는 존재만 달라졌을 뿐이지, 세대마다 많은 청소년이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빠진다’와 ‘기댄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중독을 더 잘 표현할까? ‘기댄다’는 말이 더 정확하게 중독을 설명한다. ‘기댄다’는 말에는 혼자 서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이들이 혼자 서 있지 못하거나 혼자 있을 때 ‘괜찮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계속 다른 곳에 기대려는 것이다. 게임에 기대는 아이는 게임 중독, SNS에 기대는 아이는 SNS 중독, 음란물이나 섹스 등에 기대는 아이는 성(性) 중독이 나타난다.

중독은 고통을 안 보려고 할 때 나타난다.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다. ‘고통을 어딘가에 기대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중독’이다. 아이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고통이 무엇일까? 신학자 존 히크(John Hick)은 고통을 “내가 열망하는 상태와 정반대에 와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양한 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채워지지 않은 열망을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신학자 래리 크랩은 사람에게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다. 한 가지는 ‘중요감과 가치감에 대한 욕구’다. 다른 한 가지는 ‘안정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다. 이에 더해 내가 25년 동안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욕구가 있다. 바로 ‘생동감에 대한 욕구’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인생이 즐겁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한다.

청소년들에게 가치감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독 증상이 무엇일까? 자신에게 극적인 보상을 주는 자극이다. 중요감과 가치감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의 유능감을 드러내고,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자극에 증독된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게임 증독이다. 게임개발자가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사용자들에게 기본 좋은 보상을 주는가. 아이들이 게임에 몰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팀원들에게 받는 칭찬과 격려, 게임에서 주어지는 보상 등이 아이들에게 가치감을 준다. 학교와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박수 소리를 게임에서는 들을 수 있다. 도박 증독, 운동 증독 등도 마찬가지다. 해냈다는 절정의 기분이 아이들을 증독으로 몰아간다.

성취감과 가치감을 얻고자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자녀들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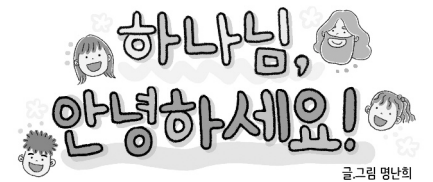
안정감과 친밀감의 부재로 생기는 중독의 대표적인 예가 ‘성(性) 중독’이다. 성중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그

들은 혼자 있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서 친밀감에 집착한다. 친밀감을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성 경험이기 때문에 성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과 애정을 성경험을 통해 채우려고 한다. 관계 중독, 채팅 중독, 쇼핑 중독도 모두 친밀감의 부재에서 생기는 중독 증상들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 조건 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생동감에 대한 욕구는 SNS 집착으로 이어진다. 집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며,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자녀와 함께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야 한다.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줘야 한다.

중독은 기대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기 시작할 때 중독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느끼고, 기대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사랑받는 경험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 부모는 자녀들이 헛된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만 기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6편 중독’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 마음의 거울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1월 22~23
일 본문 '잠 21:1~8, 잠 21:25~31'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세요. 사람들 눈에는 자기 행동이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살펴보세요. 아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골라 보세요.

- (1)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
(2)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 희생제사: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2. <잠언>에는 악인과 의인, 악인과 정직한 사람, 거짓 증인과 진실한 증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잠 21:25~31). 문제를 읽고 악인의 특징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골라 보세요.

차세대들의 독후감

〈예수님 일기〉를 읽고

책 〈예수님 일기〉는 명주, 순남, 예담, 만세, 낙정, 금형이가 일상에서 겪은 힘든 일을 돌아보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다. 이 책의 주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엄마가 나를 언제나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하셔서 조금 답답했다. 계속 잘못하면 혼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잘못하고 회개를 반복하는데 왜 그만하라고 안 하시고 계속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는 걸까? 그래서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예수님 이야기다. 특히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협이라는 게 인상 깊었다.

나는 시력이 정말 안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시절로 가면 거의 눈먼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하경 학생
(서빙고 초등1부)

함께 참여합시다! '1다락방1사역'

나눌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과 삼동보이스타운의 만남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말이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말을 증명하는 사역이 많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1다락방1사역'이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은 '1다락방1사역' 모범생이다. 그만큼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의 1다락방1사역지는 '삼동보이스타운'이다. 2016년부터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그들의 1다락방1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다. 사랑 그 자체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과 삼동보이스타운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2016년,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이의식 순장이 다락방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그때 1다락방1사역이 시작됐다. 이의식 순장과 황윤숙 권사가 기도하며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 리고 삼동보이스타운을 만났다.

삼동보이스타운은 YMCA와 연계된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남자 아동 보호시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자립과 개척정신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 삼동보이스타운에서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현재 삼동보이스타운에는 남자아이 51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원을 이미 초과했지만, 보호 종료가 되기 전까지 계속 보호할 예정이다.

그들의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이유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은 2016년부터 삼동보이스타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이 처음 삼동보이스타운에 갔을 때 베이비 박스에서 온 영유아가 30명 정도 있었다. 매주 토요일 그 아이들을 찾아가 돌봤다. 목욕시키고, 정성껏 로션을 발라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혔다. 식사시간에는 아이들을 한 명씩 말아 밥을 먹였고, 책 읽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영유아 돌봄 보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시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섬긴다. 1년에 한 번 바자회를 열고 기부받은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물건을 사기도 한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한글과 영어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의식 순장, 정옥호 집사 부부, 유지철 집사, 배경숙 권사 부부가 매주 삼동보이스타운을 찾아가 2시간씩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다.

정옥호 집사는 "정말 예쁘고 귀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이자 이모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이 '삼동보이스타운'을 찾았다(왼쪽), '삼동보이스타운'에 전달한 과일(오른쪽).



고 싶다"고 소망했다.

그 오랜 시간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시설을 청소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 순별로 돌아가며 섬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역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의식 순장이 과일을 사서 찾아가고, 순별로 현금을 봉헌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사르밈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도 보내고, 엔젤 트리에 사연도 보냈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의 돈독한 신뢰가 오랜 기간 사역을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일회성으로 하고 말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사역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 시간 이어온 섬김 덕분에 지금은 삼동보이스타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먼저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을 반긴다. 달려와 안기고, 무릎에 앉아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의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삼동보이스타운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은 한 목소리로 "삼동보이스타운 아이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밝은 에너지를 얻어 간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동보이스타운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한 예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옷이 커지고, 그 양도 많아졌는데 삼동보이스타운에는 여전히 작고 오래된 건조기뿐이었다. 건조기 가격이 한 대당 100만 원대여서 3대만 구매해도 300만 원 넘게 예산이 필요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당장 300만 원을 모으는 일이 막막했다.

그때 사회선교본부에서 '1다락방1사역'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생각났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에서도 자체적인 현금을 봉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비용이 부족했다. 그때부터 다 함께 기도했다. 재정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다음 날 아침 삼동보이스타운을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전전긍긍하던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셨다. 그 귀한 후원 덕분에 지난 11월 7일(화) 삼동보이스타운에 건조기 3대를 새로 설치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장면을 목도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

지인수 다락방장은 "새 건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새삼 깨달았다"면서 "이 일을 계기로 삼

동보이스타운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기저기서 간증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지체들과 인터뷰 하면서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몰러가 떠올랐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도 마찬가지다. 1다락방1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은 더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잠 19:17)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1다락방1사역' 참여 방법

1.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특성(탈북민, 다문화 가정, 이주민 등)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2.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역지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사역 방향을 정한다.
3. 사역지 또는 대상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사역을 실천한다.

“기도하고, 공존하고, 실천하라!”

파괴되는 생태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석희 선교사
(TIM, 인도네시아)

생태윤리학자 김 준우는 책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0.3도 상승에 달린 인류의 운명>에서 “기후 붕괴로 비상 사태에 돌입한 지구 구하기 위해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대

미문의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생명과 지구 학살의 실상을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서술하며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위(2017), 온실가스 배출량 OECD 기준 4위, 지난 10년 이산화탄소 증가율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임계점으로 표현한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 20~30년밖에 남지 않았다.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지구 기후 변화’, ‘사막화’, ‘생물의 멸종’, ‘자원 고갈’에 대해 살펴보고, 파괴되는 생태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

끊없이 상승하는 지구 온도

1915년 12월 12일 채택된 파리 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서 생태계 파멸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기후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이에 맞춰 1.5도 상승을 목표로 세웠다. 둘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량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 주장은 195개국 이 조율을 마치고 채택한 합의안의 요점이다. IPCC 회의에서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고, 해양생물 1/4이 서식지로 삼는 산호초가 거의 전멸한다고 예측했다.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30억 명 이상으로 늘고 기후 난민이 수억 명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 발표 이후 인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고, <지구 온난화 1.5도>라는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어야 하고,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7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구 온도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과 개발, 경제 성장이 맞물려 ‘인수공통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 일상을

아마간 코로나19는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팬데믹이다.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수년 동안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이 지구 온도 상승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삶의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초지로 이동하면서 인간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등 지난 80년 동안 유행한 전염병 70%가 기후 상승으로 생긴 것이다.

조호제 교수는 그의 책 <침묵의 범피 예코사이드>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조건과 맥락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방조와 비호, 경제적으로는 수익 창출과 자본축적, 사회적으로는 소비지상주의적 생활양식이 환경문제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인간은 살 곳을 잃고, 생물은 죽어가고 있다

기온 상승의 영향과 다양한 개발 행위로 인해 강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UN의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에 의하면, 전체 지구 역사보다 30~35배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고 있다. 매년 한반도 크기 1.5배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대한민국 면적 60~120배에 달하는 땅이 사막화 위협에 처해있다.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 사막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국가들은 인구 유입을 제한할 것이 분명하다. 사막화된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난민 발생은 물론이고 폭동,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생물들이 멸종하는 속도는 자연적 멸종 속도에 비해 1천 배 빠르다.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이며, 2050년까지 17~37% 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다 생물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70%에 달하는 바다 생물 개체수가 줄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모든 바다 생물 수가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계 8:8-9).

성경에 나타난 생태계 파괴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살 곳을 잃고, 생물은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살리는 책임 다하는 ‘통전적 생명론’ 회복해야

인류가 현재 같은 생활방식을 유지하면 머지 않아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지구

의 경제 규모는 지난 100년 동안 50배 커졌다.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 사용 25배, 공업생산량 40배 늘었다. 지구상에는 이처럼 무한정 커지는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와 자원이 없다. 지구는 계속되는 환경 파괴 행위를 무한정 감당할 수 없다. 현재 자원 사용 속도를 고려하면 석유 2050년, 석탄은 210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에 의하면, 인류의 활동은 1970년 이후 지구의 용량을 초과했다. 2020년에는 지구 용량의 1.6배를 소모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당연시하는 지금 같은 경제개발 방식은 필연적으로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자원 고갈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를 무리하게 성장시키지 않으면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는 에너지 요구가 적은 사회 구조(교회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하며, 먼 거리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송하는 방식 대신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쓰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무한한 자원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같은 선진국을 앞질렀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서유럽 국가의 1.5배(영국과 이탈리아의 2배)에 이르고, GDP당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최근 세계 1만3천 개 도시의 총 탄소배출량을 조사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서울이 인구수 6위였는데 탄소배출량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 생태계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이자 인간존재의 위기이다. 생명문화는 무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속자본주의 문화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이 피조세계 생명체들을 돌보고 계신다. 생태계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사적인 신앙을 넘어 공적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가 사회와 자연환경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 구원의 가치를 잘 보전하면서 공공의 선을 향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도 당연히 잘 보살펴야 한다. 교회차원의 노력만으로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교회에도 공적 영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회와 시민들이 잠잠하면 탐욕스러운 이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

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데 용이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파괴되는 생태계를 위해 교회는 지금이라도 방관의 자세가 아닌 새로운 신앙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으로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은 자연생태계를 해치면서 부를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생태계 구원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 참여하고, 재활용센터 운영, 환경상품 판매, 쓰레기 배출 최소화, 건강한 먹거리 운동, 검소한 생활의 습관화, 환경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논하면,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태계에 대해 책임 있는 공적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망가진 지구복원을 위해 ‘지구 기후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지구와 그 안에서 신음하며 사는 생명체를 끌어안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켜내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려내는 강력한 무기다(암 7:4-6). 또 교회가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재난훈련 매뉴얼을 만들어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민관과 교회가 협력해 모두를 위한 공존 마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탄소 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하고, 그 실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교회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전국 80개 지자체(광역시 17개, 기초 63개)가 ‘탄소중립 지방 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 선언을 했는지, 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생태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다. 부분적인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다. 복음은 창조세계의 모든 부분과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면에서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모든 생명과 온 세상이 하나님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사야>의 비전과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새로워짐을 믿는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사 11:1~9; 25:6~10; 66:22; 계 21:1~4). 교회는 기후·생태 위기 상황에서 생태계를 살리는 책임을 다하는 통전적 생명론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처음부터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 선교는 영혼의 구원을 넘어 사회정의, 경제 정의, 생태 정의를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느낌이나 판단이 아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창조 이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 공간, 물질, 생명, 인간이 말씀으로 창조됨’을 우리의 논리와 생각,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가 믿어진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지만, 창조의 결과로 나타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누구에게든지 나타낸다(롬 1:20).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 조각가의 천재성을 보여주듯이, 피조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이것을 시계공 비유로 표현했다. 정교한 시계를 보면 만든 당사자를 모르더라도 탁

월한 시계공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체가 그것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리에는 항상 그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이 등장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대진 보이는 물질 자체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짓이다. 이 주장은 청소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저절로 깨끗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주장을 하는 진화론을 지지하고,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는 없으며 물질세계가 전부라고 주장하는데, 유신진화론(하나님이 존재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이 초기 물질을 창조하셨고, 이후 진화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물질이 진화되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 이후 세상에 개입할 일

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신진화론은 생명과 사랑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부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초월적 사건도 없다고 주장한다.

성경과 진화론을 함께 믿을 수 없음에도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인 사건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과학은 고대 기록인 성경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신념을 포장한다. 유신진화론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한때 ‘라엘리언 무브먼트’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로 많은 기독교인이 이동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른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외계인이 와서 도와준 거라는 라엘의 해석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과학이 발달한 외계인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은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믿고자 하면 자신의 지식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속인다.

믿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지만, 보고 믿으려고 하면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면 그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믿음은 탕자가 돌아와 펼쳐질 기쁨의 잔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 질병과 가난, 슬픔과 고통 중에도, 전쟁과 불의한 세상에 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악과 방황에 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실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실재이기 때문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11월 27~12월 3일

〈스바냐〉 1:14~3:20,

〈골로새서〉 1:1~29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는 철저히 무의할 뿐이다. 구원의 길은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 겸손과 공의로 돌이키는 것이다. 죄로 인해 심판하시지만,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긍휼

과 자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상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큰 날은 분노와 환난,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우상을 섬긴 열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멸절되어 은금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받기 원한다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불레셋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모압과 암몬, 교만한 구스(에티오피아)와 앗수르(앗시리아)도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상들의 무능이 입증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목상포인트 2: 스바냐 선지자는 바벨론 포

로에서 회복을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분의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줄 회복의 그 날을 목상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패역한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탐욕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던 불의한 지도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온 땅이 소멸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통해 정화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목상포인트 3: 〈골로새서〉는 만물의 근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바울의 서신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 때 그분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고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상하자.

▶바울은 믿음과 사랑, 소망을 품고 열매 맺어 자라는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

사한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며,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복음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죄로 인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다면 가슴 찢는 회개를 하고,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지도자들의 불의와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는가? 만물의 근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지정의’로 더욱 알아가도록 힘쓰자.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힘쓰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각오로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이용옥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 순 이용옥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이용옥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뇌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검사에서 치료해야 할 곳을 발견해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폐에 급격히 암이 차서 임상계획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 동안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몸이 회복되 때까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상태에서는 비싼 약물로 임상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용옥 권사님께 호스피스 병동까지 말씀하셨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용옥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건강이 빨리 회복되서 다시 치료 받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덜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이용옥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폐가 조금씩 호전돼서 체력이 좋아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기침이 줄어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한 달 뒤 임상면역 항암치료에 이용옥 권사님이 합류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이용옥 권사님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신앙 생활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노국자 권사(동대문공동체)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다. 그래서 삶의 형편과 상황이 때로 믿음의 뿌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지시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난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기도제목이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현실의 문제다.

많은 사람이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단편적인 바람일 뿐이다. 눈이 많이 덮일수록 마른 땅이 물을 품게 되고, 추운 겨울이 지나야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기 마련이다.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믿음을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여전히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멸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의 풍량을 통해 듣게 되는

“고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현장이다.”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유대인의 사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생이 변화되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복음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그에게도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육체의 가시’다.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를 고난이 아

닌 축복으로 여겼다.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고린도후서〉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닌 육체

의 가시로 인해 불평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왜’에 집중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도대체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

러나 우리는 질문의 키워드를 바꿔야 한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다. 상황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고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곳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현장이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후 12:9a).



김한국 목사
(인천WEB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관계 변화시키는 ‘특별한 도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시도한다. 최근에는 영상을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같은 불편이나 고통을 겪어왔던 인생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의 해결 방식에 대한 영상을 찾아서 시청한다. 대부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참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시도해 보면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분명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혼자서 넘어서지 못하는 단계 앞에서 괴로워하며 스트레스 받는다. 이 단계가 되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해설이 모든 것을 담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낙담하게 된다. 영상이나 책에서 소개하는 해결책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느 날 에어컨 내부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몇 년을 사용했는데, 겨우 먼지 필터 정도 털어냈었다. 그러다 에어컨 내부를 청소하는 영상을 봤다. 그 영상에서 처음으로 에어컨 내부를 봤다. 에어컨 내부 상태가 충격

적 자체였다. 검은 곰팡이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는데 내부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해결해 보고자 여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청소 영상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결국 모험을 하게 됐다. 서툰 드라이버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지만 고민되는 난관을 만났다. 아무리 해도 내부에 결합 되어 있는 작은 전선을 분리해 낼 수 없었다. 영상에서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전문가의 시선이니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따라 할 때 사소한 보이는 부분이 큰 난관이 되기도 한다. 몇십 분이면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따라 했는데, 비전문가인 필자는 하루 반나절이 걸려 겨우 끝낼 수 있었다. 그나마 부서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결혼 생활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부부가 함께 노력한다. 많은 전문가의 해결 방법이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조언과 해결

방법 등을 듣게 된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조언을 듣고 적용해 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곧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나게 된다. 전문가들이 술술 풀어나갔던 과정과 단계들이 직접 적용해 보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부부들은 쉽게 넘어갔던 단계들이 자신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관계가 서먹한 부부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조언해주는 입장에서 쉽게 해결 방식을 전해줄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부에게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부부는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과 알려준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대화의 자리로 나가는 것부터 난관이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색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단계를 거쳐 가면서 부부만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성공의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 가야 한다. 획일화된 해결 방법이 있다기보다 각 부부에게 맞는 독특한 해결 방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 관계 변화를 맞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부 상황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상이나 글로 봤던 해결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손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 주는 게 필요하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하다.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동체에서 나누고 듣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해결 단계에 도달해 있을 때가 있다. 특히 믿음이 있는 부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전문가다. 부부의 의견이 갈려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됐다는 간증을 쌓아가야 한다.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보게 하셔서 대화의 자리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간증 말이다. 그 한 발자국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됐다고 고백하는 부부들이 많다. 그 한 걸음을 실행에 옮길 때 부부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부부 관계를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시편 16:8-9).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새로 나온 좋은 책

내가 만난 에젤 그리고 홍정희 대표



〈고마운 친구 에젤〉
홍정희 저 | 두란노 | 16,000원

내가 에젤선교회를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여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을 맞이였다. 에젤선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이라크 교회

를 돕기 위해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었다. 당시 여호수아공동체 전도사였던 나는 그 비싼 초콜릿을 구입해서 청년 리더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다. 나는 에젤선교회 대표이신 홍정희 권사님이 쓰신 책 〈고마운 친구 에젤〉 이야기 중에서 ‘초코렛으로 교회를 세우다’ (p126)에 나오는 착한 고객이었다. 하나님은 에젤선교회의 이라크 돕기 초콜릿을 통해 2003년 9월故 김사무엘 목사님과 나를 이라크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값비싼 초콜릿을 먹었다.

2004년 이후 이라크에 머물 수 없었다.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이라크 난민 선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에젤선교회 홍정희 권사님이 요르단으로 전화를 주셨다. 이라크 목회자들을 섬기는 에젤세미나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홍 권사님은 직접 올 수 없었지만, 박종길 목사님과 서경남 목사님 그리고 에젤선교회의 멤버들이 대거 요르단에 오셔서 이라크 목회자들을 섬겨 주셨다. 이 책에 당시 에피소드가 실려있다(p108). 이 책을 읽으면서 20년 전 그때가 떠올랐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홍정희 권사님의 믿음에 등 떠밀려서 이라크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고, 나와 이라크 목회자들이 하나님

의 기적을 경험했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홍 권사님과 에젤 아줌마들,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 보통이 아니구나. 겁 없는 여전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에젤선교회와 홍정희 권사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겁 없는 에젤 아줌마들’은 이 책의 제목처럼 ‘고마운 친구 에젤’이 되었다. 요르단에서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맞춰 보내주시는 에젤선교회의 예쁜 카드와 선물들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작은 행복이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가 에젤선교회와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

내가 만난 홍정희 권사님은 믿음 충만한 여선지자 드보라였고, 때로는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 때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모습이었다.

이 책에는 여호와 에젤(Ezer)이신 하나님이 홍정희 권사님과 믿음의 에젤들을 ‘물 떠온 하인’으로 사용하신 생생한 간증이 담겨있다. 선교지에서 목이 말라 쓰러진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얼음냉수를 먹이시고 살리셨는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하나

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믿음의 에젤들과 홍정희 권사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홍 권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선교사님들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눈물 그리고 함께해 준 에젤 가족들을 향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 외로운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내 인생의 발자국에 ‘고마운 친구 에젤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함께 남겨져 있음을 발견한다.

이 책은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신 참으로 고마운 친구이신 에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다.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뿐 아니라 친구가 필요한 모든 성도가 이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with You)하시는 여호와 에젤(Ezer)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노규석 목사
(안산M센터)

추천의 글

순전한 마음이 담긴 책!

에젤선교회의 지금까지 여정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남다른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고 싶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저자와 에젤선교회의 귀한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에젤선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랜 친구의 진면목 발견한 책!

에젤선교회와 저자는 저와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오랜 친구입니다. 1990년부터 23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도, 방주교회 담임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에젤선교회는 친

구처럼 늘 제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친구 에젤〉을 읽으면서 오래된 친구의 진면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

선교사 친구가 되는 법 배우는 책!

저자와 인연은 2005년 제가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학처장으로 섬길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에젤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저자를 신학대학원으로 이끌었습니

다. 같은 나이인 우리는 지금도 만날 때마다 선교 이야기를 나누며 흥분합니다.

저자는 뽕구는 낙엽을 가져다 선교사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합 병원처럼 아픈 데가 많지만, 샘솟듯 넘치는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 필요까지 채워주는 ‘공감사역’은 에젤선교회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에젤선교회의 정신과 그 사역 철학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까지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에젤선교회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을 때 큰 감동과 도전이 밀려왔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도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며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를 〈고마운 친구 에젤〉에 제대로 풀어 놓았습니다. 이 책은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선교사님들에게 언제나 한여름 얼음냉수가 되고 싶고, 작은 거라도 최고의 것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에젤선교회의

하나님께서 에젤선교회를 통해 이루신 에젤의 기적이 한국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재훈 위임목사

전과 결단이 필요한 모든 분에게 용기를 주리라 확신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책을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반태효 목사
(방주교회 담임목사)

마음과 실천을 배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정숙 교수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교회사교수)



사진은 지난 11월 18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젊은부부초청집회(왼쪽), 탁구인맞춤전도집회(오른쪽).

“전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탁구인맞춤전도집회 19명 결신, 12명 세례 젊은부부초청집회 38가정 성인공동체 등록

지난 11월 18일(토) 양재온누리교회에 전도 꽃이 활짝 피었다. 오후 2시부터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탁구인맞춤전도집회 ‘핑퐁 in Love’, 오후 3시부터 화평홀에서 젊은부부초청집회 ‘동행’이 막 올랐다.

탁구인맞춤전도집회 ‘핑퐁 in Love’는 탁구인들이 함께 대화하고, 예배드리면서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탁구대회, 식사 및 교제, CRUX 콘서트, 토크쇼, 여성민 목사 설교, 결신, 화관 세리

모니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전도대상자 46명이 참석해서 19명이 결신했고, 12명 세례를 받기로 했다. 26명이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에 관심을 표했다.

젊은부부초청집회 ‘동행’은 신혼부부 및 젊은부부들에게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를 소개하고, 성경적 가정관과 양육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환영사, 특순, 이정선 사모(이재훈 위임목사 사모) 특강, 성인공

동체 안내 및 교역자 소개, 식사 교제 등이 이어졌다. 젊은 부부 38가정이 참석했고, 38가정이 성인공동체 등록하기를 희망했다.

진주원 형제(양재온누리교회)는 “성인공동체에 대한 선부른 걱정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젊은부부초청집회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인공동체로 이동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며,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 KOICA 외교부장관 표창 해외봉사상 수상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사진 오른쪽)이 KOICA외교부 장관 표창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이 KOICA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22일(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강당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서초C공동체)이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노정숙 의료팀장은 “귀한 상의 영광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현지에서 더 큰 수고와 노력하시는 선교사님, 기쁨을 나누며 동역하는 NGO 더멋진세상에 돌린다”면

서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구촌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 의료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2006년 제정된 정부 포상이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총 198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한다. 올해 제18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총 9명이 수상했다.

/ 홍하영 기자



‘2024년 CGN 말씀 달력’ 출시
‘2024년 CGN 말씀 달력’이 출시됐다. 두란노서점(서빙고, 양재, 송도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CGN)
02-796-2310(두란노서점)

제4차 로잔대회와 온누리교회 선교

‘제9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 개최

제9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이 ‘제4차 로잔대회와 온누리교회 선교’를 주제로 지난 11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곤지암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 선교분과위원회,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등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제9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로잔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개회 강의를 했다. 임태순 선교사 ‘세계기독교와 한국교회 선교’, 한철호 선교사 ‘로잔운동과 온누리교회 선교’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소그룹 토의 및 발표도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 고무송 목사 소천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 고무송 목사가 지난 11월 19일(일) 소천했다. 향년 82세.

고무송 목사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기자, MBC PD 등 언론인으로 활동했는데 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을 당했다. 그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소망교회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영국 선교사로 헌신한 시기에는 버밍엄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란노서원 <빛과 소금> 편집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기관지 <한국기독교공보>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전영자와 1남 2녀(고은이, 고은아, 고은호)가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66기 내적치유학교 수강생 모집

12월 3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참가신청

66기 내적치유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2월 3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타교회 성도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선착순 마감

한다. 회비는 18만 원.

66기 내적치유학교에서는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등을 주제로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6330-7634

11월 세례자

■서빙고

김명철 860901
김민서 921103
김유석 691009
김유주 831119
노현준 940515
송희순 640626
신효경 820129
이경순 590507
차미옥 661020
황혜영 790520

이아리 221104
이진행 이미지
정승원 200205
정용호 박수진
정혜윤 180627
정용호 박수진

■도곡

유아
이윤도 221126
이광현 박서현
곽예준 210919
곽노현 최윤주
김건울 220813
김종현 이흥정
김서진 211209
김상연 이미지
김시은 220715
김 원 소윤미
박태양 170831
황혜영
백은규 220901
백상열 조미경
오승리 200814
오명석 이현리
이리안 221104
이진행 이미지

<대학청년>

■하늘

입교
김은정 990520

■허브

한만형 990626
입교
김이주 041125

■SNS

신이재 890101
조재희 930224
입교
박석기 910801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

12월 3일까지 ‘창조’ 관련 도서나 <천로역정>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3일(일)까지 ‘창조’ 관련 도서나 <천로역정>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에 제출하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캠퍼스 차세대들은 우편으로 독후감을 보내도 된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리(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이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200자 원고지는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12월 17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온누리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온누리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18일(토) 영종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온누리 체임버, 코리아안싱어즈, 주드림 콰이어와 협연해서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 유형 장로는

“1년 동안 새벽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찬양하며 정기연주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단원들과 남윤창 지휘자님, 윤정희 반주자님, 보이지 않게 섬기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김현준 기자

■ 'Why Mission?' 수료 간증



/ 이혜람 성도(강남B공동체)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번 ‘Why Mission?’ 과정 신청부터 등록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다. 7주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다. 매주 선교에 관해 뜨겁게 알게 해주셨다. 첫 주 강의에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임을 배웠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기다리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현장 강의로 들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오셨을 때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선교사님들의 밑알로 인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했다.

안산M센터에서 마지막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중국에서 보낸 3년의 생활이 떠올랐다. 타문화를 이해해야 선교가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타문화, 외국인이 가깝게

다가왔다. 안산 다문화거리에서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다. 막상 다가가려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가장 처음 마주치는 외국인에게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놀랍게도 그 외국인이 너무 좋아했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가방에 전도지를 넣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고,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부르신 곳으로 갈 수 있다. 이전의 굴곡진 삶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선교지에 보내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준비 과정이었다. 남은 인생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과 나와 같은 한부모 가정, 소외계층, 차세대들을 품고 섬기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Why Mission?’ 과정을 마치고 간증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전도학교 수료 간증



/ 윤주희 성도(S브릿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도 엑스포’라는 말을 듣고 신기하고 궁금했다. 그래서 한 번 둘러보아야 했는데 시간이 여의찮았다. 어느 날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과 선교관을 지나는데 갑자기 전단을 받았다. 전도학교에 관한 내용이었다. 집에 와서 전단을 다시 보다가 ‘꼭 들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전도학교에 등록하고 첫 시간을 맞았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포레들만 만났는데 조장님이 권사님이셨다. 그동안 아이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만나고, 권사님이 조장을 맡으셔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전도에 대해 말하는 교회 어른들을 만난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

‘5분 메시지’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했었다. 매주 전문을 시연하고 외워야 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입으로 전도 전문을 말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믿는 이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믿음의 고백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계속 구원을 새기는 작업이 먼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다.

강의와 책자 그리고 추천 도서를 통해서 전도 전문과 성경 내용이 설명되었다. 여러 상황에 대해 사실을 적용하고, 구현한 내용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귀한 증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 역시 사람들에게 “왜 교회만 다녀야 하나?”,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 “기독교인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었다. 과거 내가 대답했던 내용에 장로님의 설명이 더해져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도에 대한 답지를 받은 느낌이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온 것 같은 전도학교였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전도학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누림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전도의 예배를 풍성히 드리기를 소원한다.

■ 갈렙선교학교 스태프 간증



/ 김성진 헬퍼(갈렙선교학교)

선교의 IP를 찾자!

갈렙선교학교가 ‘선교의 IP를 찾자!’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IP는 ‘Identity’와 ‘Potential’의 약자다. 선교의 정체성과 잠재성을 찾자는 의미다.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잠재성을 발견하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새 비전을 세웠다.

갈렙선교학교의 새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가 지난달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갈렙선교학교 흡커밍데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갈렙선교학교 수료생들이 늘 학기를 마치며 궁금해하는 게 있었다. 갈렙선교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다. 선교를 배웠는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 과정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질문이 많았다. 그래서 갈렙선교학교에서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렙선교학교 수료생들의 다음 행선지를 여섯 영역으로 나눴다. ‘선교사 지원’, ‘선교 동원’, ‘의료 선교’, ‘이주민 선교’, ‘북한·난민 선교’, ‘교육 선교’다. 이 여섯 가지 영역이 선교를 이어 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것이다. ‘선

교사 지원’은 말 그대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보기도나 후원 등이 될 수 있다. ‘선교 동원’은 직접 선교사로 동원되는 것이다. 선교사로 자원할 성도들이 이 팀에 속한다. ‘의료 선교’는 갈렙선교학교 안에 있는 의료인들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주민 선교’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 ‘북한·난민 선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탈북민과 난민들의 필요를 돕는 사역을 한다. ‘교육 선교’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수료생들이 선교사 자녀들이나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역이다.

85세 노년의 갈렙은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다. 갈렙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 진실한 영과 믿음으로 늘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은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갈렙선교학교 수료생들에게도 갈렙의 믿음과 열정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새롭게 세운 비전과 사역을 노년에 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 어린이·부모 성장학교 하트스쿨 아웃리치



/ 하상우 집사(강남D공동체)

미리 가 본 천국 ‘찾아가는 하트스쿨’

‘28기 어린이·부모 성장학교 하트스쿨’에서 상주교회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 이름은 ‘찾아가는 하트스쿨’이었다. 상주교회(윤석원 목사)는 120여 년 전 베어드 선교사(William Martyn Baird)의 2차 순회 전도부터 시작된 역사 깊은 곳이다. 베어드 선교사는 숭실대학교 설립자이고,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다.

이번 하트스쿨 아웃리치에는 상주교회, 시민교회, 서문교회, 안산동산교회, 온누리교회가 연합했다. 아웃리치 첫째 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트스쿨을 시작했다. 상주교회 청년들이 연주와 싱어로 섬겨줘서 감동을 더했다. 연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내 아이와의 대화법’, ‘마인드맵으로 나의 생각 표현하기’(이유정 교육학박사), ‘신기한 가게’, ‘우리 아이 예쁜 손’(신미경 미술치료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동안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웃리치 둘째 날, 주일예배에서 어린이 찬양 ‘천국은 마치’를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아직도 상주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호응이 여운으로 남아 있다. 임사라 선교사님의 ‘핵심감정의 이해’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모두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김인선 장로님의 인도로 아버지들이 기도문을 외웠고, 가정별로 흠어져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입학식 선서, 하트스쿨 소개, 수료증서와 선물 증정도 빼놓지 않았다. 가족별로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미리 준비한 액자에 넣었다. 주일예배를 드리기 전에 김석담 안수집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치유기도 시간에는 아픈 육신이 호전되고, 방언기도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도 이런 맛에 아웃리치를 다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한마디로 천국 여행이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다.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귀한 경험을 나눌 ‘하트스쿨’과 ‘찾아가는 하트스쿨’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문의: 010-4528-0477

신앙에세이

‘영적 요요’ 막는 방법



최성민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SNS청년부)

나는 2017년 3월 3일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다. 바로 다이어트다. 당시 내 몸무게는 100kg을 코앞에 둔 98.8kg이었다. 더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20kg을 감량했다. 살을 빼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나는 원래 잘 생겼다는 사실이다. 살을 빼기 전에는 몰랐는데, 턱선이 있고, 복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원래 멋진 사람이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영적인 깨달음도 있었다. 우리는 최고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최고의 피조물’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욕심과 이기심, 교만과 질투, 부정적인 죄라는 지방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원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죄의 지방으로 인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착각한다. 죄의 지방이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한 거라고 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지방이 가득 찬 모습이 당연하지 않은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다. 일종의 지방 흡입술을 마치고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저마다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자존감을 회복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영혼의 요요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영적 요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영혼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루틴은 세 가지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쁜 것만 바라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불평하다가 끝나게 된다. 비교하는 순간 기쁨의 시간이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대부분 내 소원을 위한 기도를 떠올린다. 조금 더 편한 삶,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 신앙은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다. 신앙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 욕심을 밀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갈 수 없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할 게 없다고 한다. 불평하고 욕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분노와 불평이 들어차 좋은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영적 루틴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은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이다. 매일 은혜 앞에서 기뻐하고, 날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매 순간 감사를 떠올리며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한다.

권사칼럼

매달 교도소를 찾는다



오윤희 권사
(일산파주공동체)

나는 새사람사역팀에서 7년째 섬기고 있다. 매달 교도소를 찾아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만나고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나오는 사람들이다.

매번 가는 길인데 그날 교도소 가는 길은 조금 달랐다. 4년을 꼬박 함께 일대일제자양육하던 형제님이 이번 추석 때 가석방되었을까? 10월이 출소였던 초신자 형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형제님들 소식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이 앞섰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교도소에 도착해서 정말 많이 울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 있는 새사람사역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 없기를 바랐던 분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교도소에서 총 10년을 살고 11월 말에 출소하는 형제님도 같이 우셨다. 다른 한 형제님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지난달에 나가셨다고 한다.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새사람사역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교도소에 나이가 지긋하고 점잖은 분이 한 분 계신다. 사업 문제로 얽혀 교도소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갈 때마다 진실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믿어 보셨다고 고백하신다. 세상과 격리돼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라고 고백하셨다. 약간 어색하면서도 수줍은 고백과 그분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그분을 보면 50~60대 한국 남자들에 대한 짝한 마

음, 말없이 모든 책임을 맡은 가장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올라온다.

4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대일제자양육 하고, 교제를 했던 형제님도 있다. 이 형제님은 교도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셨다. 그 형제님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으로 잘 해내실 것을 확신한다.

한 형제님은 간증을 나누셨다. 내가 4년 전 즈음 아파서 수술하고도 교도소에 와서 계속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셨다고 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감동하게 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했다.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교도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7년 동안 만났던 분들을 떠올렸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눴던 많은 분이 떠올랐다. 하루라도 먼저 출소하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다. 그래서 나는 빈자리를 보면 너무 좋다. 뒤로 눈물 흘린 적도 많다.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 순진무구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많았다. 만물은 외양 그대로가 아님을 새사람사역을 하면서 더욱 알게 된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곳은 어장이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영혼들이 참 많다. 그래서 새사람사역팀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매달 교도소를 찾는다. 하나님도 그곳에 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신다.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들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신다. 나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것을 다짐한다.

사역칼럼



채현석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실)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군 생활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전역 후에 모교인 대학 박물관에서 오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시니어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3년 만에 비자의 어려움이 생겨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2000선교본부의 요청으로 온누리교회의 선교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보존하는 사역,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다.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선교역사 기록의 성경적 근거와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자 역사책이다. 성경을 수십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신앙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없는 일이다.

성경이라는 역사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와 삶의 올바른 윤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다.

성경에서도 기록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간섭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기록의 힘!

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후대에 전하도록 하셨다(출 24:4). 그 이후 백성 지도자들과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준 게 성경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목적이 ‘신앙을 형성하고 빠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고전 10:1~11).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 역사적 기록물인 성경을 신앙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우리도 삶을 기록해서 전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흠결(欠缺)이 있어도 되도록 사실 그대로 기록해서 남기고,

후대에 전달해야 한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그들의 삶이 결코 완벽하거나 거룩하기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삶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믿음을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회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요, 역사 기록의 힘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이들 잊고 지내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교훈과 기록의 힘이 중요하다.

나는 삶의 기록을 진솔하게 남기는 것의 성경적 근거와 의미를 정리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금 맡은 사역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선교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기록하는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희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한누리학사 탈북민 대학생 남자기숙사 입주자 모집
모집: 서울 소재 2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동일한 과정의 입학 예정자
인원: 남자 6명
문의: 010-7107-5270(한누리통합팀)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수요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라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지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희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1: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태안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사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은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환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중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애 박성은B
박성천 박전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배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뮈엘 양성진 양재경
이세일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수우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정훈 최혜준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석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허희희 황중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홍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근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엘은 新嶺峯
마주마루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생애마늘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톨츠 이강혁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해선 윤치연
제인량 존콰이즈 차재미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김관순 권대식 권예람 권미정
박사은 구길모 김동규 김광석A
김기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반석A
김민숙 김미리 김민수 김요셉
김남석B 김영신 김예찬 김요셉
김의연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홍미 김성애B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혜 박의려 방예린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재 신기환
김주용 심은섭 안류택 윤조현
염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병희 이민규 이상은
이선혜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화영
임경미 임도완 임동현 임진숙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성원 정성민 정연영
정요한 정은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희 진유석
최광조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하여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영선 권원호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숙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원준 김원배 김원익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중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평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중 문창호 문충식 문헌구
박 공 박남인 백승용 박상승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민 박석진
배 문 배남인 백승용 백종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성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진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우현 양재주 임대진 오성연
우광범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희준 윤영성 윤영오
유현준 윤형준 이기범 이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삼기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정형준 정구영 정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민 정호봉 정영열 정용하
정재택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라 정희원 차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영일 오성철 차준기
차준환 차정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정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욱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함곡식
한양희 한종수 한형식 함곡식
함소영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정철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이진택 이태열 이학일

●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의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금세종 김경동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인 김두진 김민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준 김성원
김영순 김영옥 김영국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창영 김재일 김경민
김재홍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영태 김형준 김형준
김형중 김하선 김하수 김호국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정진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라성원 류기범 명영진 문상환
문영기 문로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철 박성규 박순길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근
박흥선 방찬중 배기영 배승호
백종진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성광열 성주명
손기철 손정태 손태용 송동섭
송중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현 양상식 양 용
양준홍 양춘경 양희우 오 병
오남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탁
오이식 용대문 우성구 원종주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유남식 윤영각 이기중 이길수
이광순 이규현 이기중 이길수
이남식 이대용 이백용 이병규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영규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임광순 임현태 임호열
장경식 장선철 장선배 장문석
장정환 장우진 장정열 장영문
전한배 정영환 정영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환 정운석 정운우
정영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도
정대경 제무순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희규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보림 최상기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하원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원
한복규 한상규 한광석 한정혁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남 허영남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홍성호
황상진 황성룡 황윤일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정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성건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경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패트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혜근 김경철
김정환 김지형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승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병희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수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은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가야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차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 해외 온누리교회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이길택 이민욱 요시하라 마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미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 OMA 담당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상권
이정엽 이종재 정장철

●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성원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은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향선 남진우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민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원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평
이상은 이서원 이승윤 이은택
이우영 이정우 이형근 장시우
장재홍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한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광고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3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전 캠퍼스)
기간: 11/27(월) - 12/17(일)
방법: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 그림, 글씨, 메시지 상관없이 크
리스마스 축하의 의미가 포함된 콘텐츠(직접 제작한 크리스마
스 카드 제출, 그래픽의 경우 제작해 JPG, GIF, MP4 파일로 제
출)
제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3, 이메일
onnurismart@gmail.com,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2층 IT지원팀 이경희 사역자 앞)
시상: 1등: 1명, 외식 상품권(15만 원), 2등: 2명, 외식 상품권(10
만 원), 3등: 3명, 외식 상품권(5만 원), 크리스마스 축하상: 10
명, 크리스마스 케이크
문의: 02-3215-365
*제출 시 소속 캠퍼스 공동체, 이름,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응모는 DM).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원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원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축탁의(유급 봉사자) 모집

대상: 의사면허 소지자
기간: 월 1회/회당 1시간(워킹 시간 1년)
장소: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내용: 복지관 어르신의 건강상담 및 물리치료 처방
문의: 조진희(02-703-6011)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차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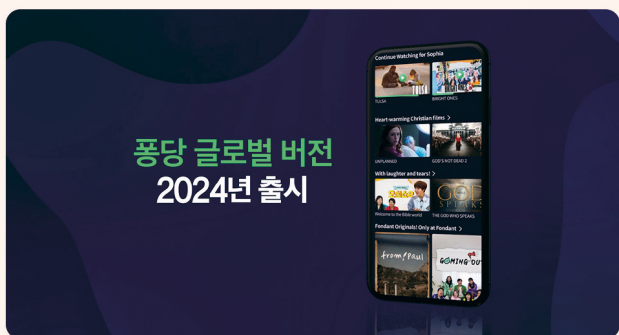
소천

11/15(수) 서초D 김진일 성도 부친상 고 김광년
11/17(금) 양재A 윤희의 성도, 윤희원 성도 부친상 고 윤병률
11/18(토) 김포 윤영애 권사 부친상 고 윤공현
11/19(주일) 김포 김해경 집사 모친상 고 김옥순
11/19(주일) 양재A 이여환 성도 시부상 고 김윤식
11/19(주일) 서빙고 권복희 권사 모친상 고 유연자
11/20(월) 강촌 백수화 집사, 찬양 배수정 성도 부친상
고 백동기
11/20(월) 김포 김영애 권사 배우자상 고 박건기
11/20(월) 부천온누리교회 류재욱 과장 부친상 고 류창용
11/20(월) 강서 이호진 순장 부친상 고 이완석
11/21(화) 분당A 장성수 집사 부친상 고 장중혁
11/23(목) 양천 전정숙 권사 부친상 고 전홍중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CGN과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한 "풍당 글로벌 버전"



2024년 선보이는 "풍당 글로벌 버전"은
선교지를 위한 콘텐츠와 서비스로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풍당 3주년 오리지널 콘텐츠 "바울로부터"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며,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과 헌신적 삶을 담은 다큐,
"바울로부터"가 2024년 2월 공개됩니다.

2024년에도 **CGN**은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과 함께
문화, 언어, 세대를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앱 다운로드

"CGN과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선교미디어 CGN, 어디서나 모두에게



신규후원



종액후원